박원자의 母情佛心 ⑱ 원산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前 조계종 교육원장 원산 스님은 집에 아무런 말도 없이 19세에 출가했다. 출가한 아들을 어머니는 한 번도 찾지 않았다. 강주가 돼도, 큰 사찰 주지가 됐어도 어머니는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지막이 돼서야 스님에게 속내를 털어놨다. "매일 밤, 막차 때까지 정류장에서 너를 기다렸단다."

"매일 밤, 정류장서 너를 기다렸다"



그림 · 박구원

〈포레스트 검프〉는 1994년에 제작된 미국 영화다. 제67회 아카데미영화에서 작품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등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보통사람보다 지능이 낮은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세상의 모든 역경을 뛰어넘으며 운명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감동 깊게 보여주고 있다. 연기파 배우 톰 행크스가 주인공 포레스트 역을 어찌나 리얼하게 소화하던지 마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았다. 배우는 어쩌면 영화를 찍는 그 순간만은 무심의 경지에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 영화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무념(無念), 무주(無住)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내 자식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며, '이렇게 살아야한다' 는 선을 규정해놓고 자식을 몰아가지 않는다. 자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생명의 존엄만을 인정할 뿐 더 이상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 자식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구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장애를 가진 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한탄하지 않는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다. 여행객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자신의 현실에 충실할 뿐이다.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다리가 불편한 아들에게 보조 장치를 달아주며 그녀는 네가 남들과 달리 다리가 불편해서 이 장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건 마법의 신발이야. 너를 어디든지 데려다 줄 거야. 남들과 너는 하나도 틀리지 않단다."

포레스트 어머니가 아들의 지능이 정상보다 낮아서 일반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다는 교장에게 묻는다. "정상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분별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화두 같은 질문이다. 정말 정상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친구 제니가 주변 친구들에게 위협당하는 포레스트에게 외쳤던 말이다. "뛰어! 포레스트! 위험할 땐 괜히 용감한 척 하지 말고 뛰어!"

이때 다리에 차고 있던 보조기구가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보조기구 없이는 걸을 수 없었던 포레스트가 이후 정상적으로 걷고 뛸 수 있게 된다.

"뛰어!"

나는 이 두 한마디가 '무심히 현재에 집중해!' 라는 소리로 들렸다. 실제로 그 후에도 포레스트는 달리기로 대학에 들어가고 전국 미식축구 대표팀에도 들어간다. 군대에 입대에 베트남 파병을 가게 되고 그 후 사업가로도 성공하게 된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많고 수용하며 순수무잡한 무심으로 현재를 온 몸으로 받아들였던 결과였다. 분별없이 무심으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에게서 받은 정신적 유산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느 고승께서 '중생의 병에는 무심이 제일 좋은 약이다' 라고 설법했다는 말을 들었다. 무심은 아무런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다. 생각 이전의 본래 청정한 자리이다. 그 마음자리를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세상의 어머니들은 도를 닦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사는 것 같다. 적어도 자식을 키울 때만큼은 그렇다. 통도사 백련암에 주석하시는 원산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의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었나 싶다.

원산 스님은 열아홉 살 때 온다 간다 말없이 집을 나와 돌아가지 않았다. 젊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보름쯤 되었을 때 아들이 돌아왔다. 출가를 하겠다고 했다. 출가를 하려면 부모님의 승낙이 필요했기 때문에 잠시 돌아온 것이다.

"큰아들이 출가를 하겠다고 하니 놀라셨겠어요?"

"먼발치서 바라만 보실 뿐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할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표현도 못하셨어요. 불자이셨던 할머니께서는 손자의 출가를 좋아하셨죠. 집하고 절이 가까웠으니까 자주 올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대체로 스님들께서 출가할 때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하시던데 스님은 어떠셨나요?"

"이것저것 깊이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절로 돌아왔는데, 밑으로 남동생이 셋이 있어서 부모님 모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출가생활에 전념했죠. 집안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성품이 자비롭고 마음의 폭이 넓었던 어머니는 아들이 사는 곳에 오지 않았다. 포레스트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현재에 충실할 뿐이었다. 농사를 지으며 아들 셋, 딸 다섯을 교육시키고 시집 장가를 보냈다.

> 19세에 말도없이 출가한 원산 스님
> 어머니는 한번도 아들 찾지 않았다
> 生 마지막 밝힌 속내, 스님 눈시울
> "평생 인욕 보살로 살아다 가신 분"

큰아들이 당대 최고의 도인이라 불렸던 노스님에게 출가를 했어도 절에 한번을 오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은사를 찾아와 법문을 듣고 인생을 물었지만, 자신의 도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공경하고 농사를 짓고 남은 자식들을 건사하는 것에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아들 스님이 몇 년 동안이나 전기, 건물 불사를 한다고 한여름에 소금가마니를 지어 나르고 땀을 흘리며 길을 닦아도, 주변 수천 평의 밭을 일구며 고생을 하고 있어도 찾아오지 않았다. 유명한 스님(직지사 황악학림 관응 스님)에게 전강을 받아 후학을 가르치는 강주 자리에 올랐어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했다.

암자 한쪽 끝에 토굴을 지어 무문관이라 이름 짓고 3년 동안이나 토굴 밖을 나서지 않는 폐관수행을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하지 않았다. 폐관수행이 끝나는 날 아들의 법문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통도사라는 큰 절의 주지를 맡고 있어도 그런가보다 했던 어머니다.

과거의 일을 취하지 않고 미래의 일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어머니는 이미 보살이었다. 그래서 아들도 어머니에게 특별히 신행생활을 권한 적이 없다. 무엇을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살의 삶을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수행은 군더더기였는지도 모른다.

"은사이신 경봉 스님께서 부부가 찾아오면 몇 남매를 두었느냐고 물으시곤 했어요. 다섯 남매를 두었다고 하면 '죽을 고비를 다섯 번 넘겼다' 고 하셨고, 일곱 남매를 두었다고 하면 '일곱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 고 하시면서 곁의 남편에게 아내가 고생했으니 좋은 패물이라도 사주라고 하셨죠. 은사 스님의 말씀처럼 자식을 낳아 키운다는 게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고생스러운 일이겠지요. 우리 어머니는 9남매를 낳아 길렀으니 그 고생이 오죽하셨겠어요. 더구나 20대에 일찍 혼자가 되신 할머니의 시집살이를 호되게 사셨으니 인욕보살이셨죠. 일생을 통해 참고 견디는 모습만을 보이셨죠. 동네어른들이 어머니를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나도 인내심이 많은 편이예요. 한 번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그만두는 법 없이 끝을 내고 말죠. 출가해서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일흔여덟의 스님께 듣는 '지금도 열심히 산다' 는 말씀은 스님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현재를 살뿐이라는 의미로 묵직하게 다가왔다. 조계종단의 교육을 책임졌던 스님에게 여쭈었다.

"자식에게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로서 주어진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죠. 오직 한마음으로 자식과 집안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신도들에게 '믿고 실천하고 기도하라. 일체가 하나 되어 여래의 품안에 들게 될 것이니' 라고 법문한다.

스님의 어머니는 95세에 9남매의 효도를 받으며 돌아가셨다고 한다. 말년을 늘 밝고 편안한 모습으로 사셨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해 전, 자신을 보러온 큰아들 스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

"스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갔을 때, 매일 저녁 동네 정류장으로 나가 기다렸어. 막차가 들어올 때까지."

그날 일흔 살이 넘은 아들 스님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어머니가 쉬지도 못한 채 밤늦게까지 자신을 기다렸을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한다.

"왜 그 말씀을 그렇게 늦게 하셨을까요?"

"글쎄, 자식 마음이 상할까봐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식의 마음이 상할까봐 끝까지 조심하는 존재가 어머니 보살이다. 위대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세상의 어머니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로 살아내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어머니들이니까.

〈작가〉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